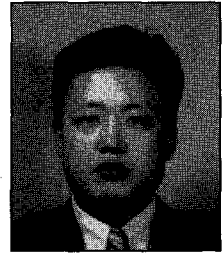


>>>

### 환경을 고려하고 고품격 디자인에 힘쓸 터

소비자의 성숙된 의식도 포장디자인 발전에 기여



이 은 태  
코리아나 화장품 공장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2002 우수산업디자인(Good Design)상품이 선정됐다.

포장 디자인류에서는 모두 22개 업체에서 57점이 출품돼 16개 업체 20점이 선정됐다.

그 중 코리아나 화장품 “엔시아”가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코리아나 화장품 이은태 디자인팀 과장은 “GD상품전을 통해 한국디자인진흥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고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을 선보이고자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코리아나가 수상한 제품은 엔시아 티플러스스 하이드로 토너 제품이다.

Vit C를 컨셉으로 해서 크게 사랑을 받았던 오렌지색 엔시아, 포어케어로 모공시장을 석권한 초록색 엔시아에 이어 한단계 진보된 차(茶)를 컨셉으로 한 엔시아 티 플러스의 디자인은 기존의 엔시아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차(茶)의 이미지를 부각, 차별화된 변화를 주어 기존 엔시아의 구매 소비자들에게는 친근함을, 새로운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함을 주고자 한 것이다.

또한 유·수분, 펄밍 라인으로 나누어진 제품구성에 맞춰 각각 용기 및 패키지 전반에

홍(紅), 녹(綠), 황(黃)색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차(茶)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도록 하였다.

용기의 투명함은 제품의 신선함과 촉촉함을 부각시키고자 함이며 용기상단의 정원에서 하단의 정육면체로 이어짐으로 형성되는 측면의 긴장된 수직선의 변화는 기존의 밋밋한 원통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제품의 부드러움과 탄력있는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함이다.

특히 엔시아 티플러스스는 기존의 엔시아와의 차별에 중점을 두었기에 디자인 차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은태 과장은 “현재 포장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점은 환경문제인것 같다”며 “기업은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재료, 과대포장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소재, 디자인에 높은 가치를 주고, 구매자인 소비자의 성숙된 의식도 포장디자인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need에 부합된 포장 디자인을 선보이길 기대하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새로운 각오와 함께 코리아나 화장품의 도약을 기대한다. ☐